

‘또 다른 유토피아’의 건축



1960년대 낙천적 기계주의의 선단을 제시했던 영국 아키그램의 상상력이 모두에게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던 듯싶다. 이탈리아 건축가 에도레 쏿사스의 그림 ‘또 다른 유토피아’(1973)는 아키그램의 ‘플러그 인시티’와 ‘워킹시티’가 여러 고층 건물들과 함께 파괴된 양상을 묘사하고 있다. 전쟁이나 쓰나미가 찬란했던 도시를 휩쓸고 지나간 후의 일이라. 쉽 없이 달리며 꿈꿔온 유토피아가 인간 스스로의 욕심에, 혹은 자연의 작은 떨림에 일순간 무너져 내린 것이다. 쏿사스의 그림은 인류

의 오만한 기술문명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에 다름 아닐 테다.

이러한 재앙은 늘상 현존한다. 십수 년 전 9.11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며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 역시 현재진행형인데, 이 못지 않은 인재와 천재가 지금도 온갖 양태로 우리를 넘보고 있다. 얼마 전 타계한 미국의 건축가 레비우스 우즈(1940~2012)는 현존하는 ‘위기’에의 직시를 주문하며, 엄연한 현실에 등을 돌리고 쾌락에 안주하려는 타성을 크게 비판한 바 있다. 그리고 각종의 전쟁과 자연재해 등을 조형적으로 표상함으로써 ‘언캐니(uncanny)’한, 즉 “근본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현대의 조건”(A. Vidler)을 노출했다.

이쯤해서 일본의 건축가 후지모리 테루노부(1946~)를 언급할 만하다. 그는 보통 진흙, 나무, 돌 등의 자연재료를 대폭 사용하고, 지붕에 식물을 심기도 하면서 원시 오두막과 같은 건물을 짓는다. 여기엔 일반인들의 단순 수작업도 동반되는데, 그의 작품 대개는 기본적으로

아련한 과거에의 노스탤지어를 자극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스스로도 석기시대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건축, 양식(style)이 확립되기 이전의 ‘국제적’ 건축을 지향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원시성을 넘어선 웬지 모를 낯성의 분위기 또한 느끼게 된다. 그의 21세기 원시건축이 석기시대의 그것과 다름은 1만년에 걸쳐 덧입혀진 문명사의 켜들을 어렵푹한 자국으로 상기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1971년 그의 대학 졸업설계가 아키그램의 기계주의에 영향을 받았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폐허와 소생의 시나리오를 간직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일본이 직면했던 고도의 공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의 문제가 젊은이들로 하여금 문명의 과국을 희미하게나마 인식케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은 원폭과 패전의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무의식 저편에 보듬고 있었던 것이다. 청년 후지모리에게 기술주의 이후 수반될 폐허와 소생의 아이디어가 싹텃음은 어쩌면 너무도 자연

스런 일이었겠다.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인류 진보의 신화는 어디 갔는가? 후지모리의 원시성 이면에는 테크놀로지의 진보에 근거한 유토피아에의 기대가 허물어진 후, 기술주의의 무력감을 보상하고자 심리가 깔렸을 법하다. 혹여나 20세기 후반 기술에 대한 낙천적 기대가 붕괴했다면 그 폐허의 디스토피아로부터 도피할 새로운 자연주의가 필요할 테니 말이다. 그리고 보니 쏿사스의 그림은 폐허 속에서도 한줄기 희망의 빛을 보여준다. 그것은 피폐한 대지를 끌어안고 정화하는 대자연의 소생력이다. 풀 한 포기 자라지 못할 것만 같았던 땅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부러진 구조물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 넝쿨을 보라. 인간의 기술 문명에 승하는 자연의 힘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김현섭
공과대 교수·
건축학과

